

蘇軾 시에 나타난 蘇轍의 형상

류 소 진*

<目次>

I. 서론	IV. 정치적 동지
II. 애뜻한 血肉	V. 은거의 동반자
III. 절친한 詩友	VI. 결론

I. 서론

蘇軾(1036~1101)의 시를 읽다 보면, 蘇轍(1039~1112)의 시에 次韻한 것이 유난히 많고 차운시가 아니더라도 소철에 관하여 언급한 시가 매우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소식에게 소철은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진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宋史》 중의 〈蘇軾傳〉과 〈蘇轍傳〉을 살펴보니 《宋史·蘇轍傳》¹⁾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

소철과 그의 형은 나아가고 물러남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없었다. 환난을 겪는 가운데 우애가 더욱 돈독해져 조금도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일이 없었으니, 근고에 보기 드문 일이었다.(轍與兄, 進退出處, 無不相同. 患難之中, 友愛彌篤, 無少怨尤, 近古罕見.)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托克托, 《宋史》(四庫全書本) 卷339 〈蘇轍傳〉.

두 형제가 유난히 상통하는 점이 많고 우애가 매우 두터웠음을 짐작케 하는 기록이다.

그리고 소식 스스로도 “나는 어려서부터 자유(소철)를 잘 알았거니와, 타고난 자질이 온화하고 맑았다네. 학문을 좋아함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견고해져, 외면과 내면이 점점 융화되고 명철해졌다네. 그러니 어찌 단지 내 동생이기만 하겠나? 요컨대 그는 나의 현명한 벗이라네(我少知子由, 天資和而清, 好學老益堅, 表裏漸融明. 豈獨爲吾弟, 要是賢友生)”²⁾라고 하여 소철의 성품과 학문에 임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소철은 단지 동생일 뿐만 아니라 현명한 벗이기도 하다고 천명했다. 이는 소식에게 있어서 소철이 동생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소식 자신이 동생이기도 하고 벗이기도 하다고 천명한 소철은 소식에게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필자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의 연구 성과를 두루 검토해 보았으나 직접적으로 소식 시문에 나타난 소철의 형상에 대하여 연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필자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기 위해 소식에게 있어서의 소철의 형상과 관련이 있는 소식 시를 두루 찾아보았다.

필자는 ① 소식이 먼저 소철에게 부쳐 보낸 시, ② 소철이 보내온 시에 소식이 화답한 시, ③ 소철에게 보낸 시는 아니지만 시의 서문이나 본문에서 소철에 관하여 언급한 시, ④ 어머니의 삼년상을 마친 후 삼부자가 함께 開封으로 갈 때 배 안에서 동일한 대상을 두고 함께 지은 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식에게 있어서의 소철의 형상과 관련이 있는 소식 시를 조사해 보았는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현전하는 소식 시 약 2,800

2) <자유와 막 작별하다(初別子由)>(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7, 757-759쪽). 본고에서 인용한 소식 시 중에서 《蘇軾詩集》(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卷1-36에 수록된 시의 경우 《정본완역 소동파시집 1-5》(류종목 역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2023)의 번역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수 가운데 소식에게 있어서의 소철의 형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300여 수로, 전체 소식 시의 10%를 넘게 차지한다.³⁾

본고에서는 이 300여 수의 소식 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심도 있게 분석해 봄으로써 소식의 시에 나타난 소철의 형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애뜻한 血肉

소철의 〈超然臺賦并敘〉⁴⁾에 “자첨(소식)은 杭州의 通判으로 근무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다가 내가 제남(지금의 山東省 제남)에 있다는 이유로 동쪽 고을의 태수로 보내 줄 것을 주청했다. 密州(지금의 산둥성 諸城)로 보내 달라고 주청하여 윤희를 받았는데 …… 명을 받은 그해에 큰 가뭄의 여열로 누리를 구제하고 도적을 잡고 창고를 열어 기근을 구휼했다(子瞻既通守餘杭, 三年不得代, 以轍之在濟南也, 求爲東州守. 既得請高密, …… 受命之歲, 承大旱之餘孽, 驅除螟蝗, 逐捕盜賊, 廩卹饑饉)”라고 한 바와 같이, 소식은 杭州通判의 임기가 끝나 다른 지방의 知州로 옮기게 되었을 때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극도로 열악한 고을 밀주로 보내 줄 것을 주청했다. 동생 소철이 밀주에서 가까운 제남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소식의 형제애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일이다.

소식은 그의 대표적인 詞 〈水調歌頭(明月幾時有)〉⁵⁾에서 “다만 바라나니

3)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계 수치는 모두 《蘇軾詩集》(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을 저본으로 삼아 조사한 것이다. 소식과 소철의 唱和詩를 연구한 黃瑩의 《蘇軾蘇轍兄弟唱和詩研究》(廣西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68쪽)에서는 소식과 소철의 唱和詩가 모두 886수이고 그 가운데 소식이 지은 것이 473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소식이 소철과 무관하게 지은 시에 소철이 화답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런 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통계에서 제외하고, 대신 唱和詩는 아니지만 소철에 관하여 언급한 시와 두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두고 함께 지은 시를 추가하였다.

4) 蘇轍 著/曾棗莊·馬德富 校點, 《欒城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413쪽.

우리 오래 살아서, 천 리 밖에서나마 고운 달 함께 볼 수 있길(但願人長久, 千里共嬋娟)” 하고 노래했다. 이 사는 바로 소식이 밀주에 있을 때 지은 것인데, “병진년 중추절에 새벽까지 거나하게 마시고 크게 취하여 이것을 짓고 아울러 자유를 그리워한다(丙辰中秋, 歡飲達旦, 大醉, 作此篇, 兼懷子由)”라는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생과 가깝다는 이유로 자청하여 密州知州가 되었지만 둘 다 관직에 매여 있는 몸이라 중추절이 되었는데도 형제가 함께 명절을 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사를 지어서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설령 앞으로 함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멀리서 달이나마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이 마지막 두 구절에는 동생을 생각하는 형 소식의 애뜻한 마음이 특히 진하게 드러나 있어 읽는 이의 마음을 짠하게 한다.

이처럼 소식은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지만, 장성하여 관직에 나아간 뒤로는 각기 지방관 생활과 유배 생활로 인해 전국 각지를 전전하느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소식의 시 가운데 동생과 헤어질 때나 헤어진 뒤에 지은 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는 동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걱정 등의 복합적인 감정이 짙게 배어 있다.

먼저, 이들 형제가 난생 처음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지은 <신축년 11월 19일 정주 서문 밖에서 자유와 이미 헤어진 후 말 위에서 시를 한 편 지어 그에게 부친다(辛丑十一月十九日, 既與子由別於鄭州西門之外, 馬上賦詩一篇寄之)>⁶⁾라는 시를 보자.

不飲胡爲醉兀兀,	술도 안 마셨거늘 왜 이리도 비틀대나?
此心已逐歸鞍發.	내 마음은 이미 돌아가는 자네 안장을 따라가네.
歸人猶自念庭闈,	돌아가는 자네는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겠지만
今我何以慰寂寞.	이제 나는 무엇으로 이 적막감을 달래나?

5) 鄒同慶·王宗堂 著, 《蘇軾詞編年校註》, 北京: 中華書局, 2002, 173-174쪽.

6)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95-96쪽.

登高回首坡壟隔,
但見烏帽出復沒.
苦寒念爾衣裘薄,
獨騎瘦馬踏殘月.
路人行歌居人樂,
童僕怪我苦淒惻.
亦知人生要有別,
但恐歲月去飄忽.
寒燈相對記疇昔,
夜雨何時聽蕭瑟.
君知此意不可忘,
慎勿苦愛高官職.

높은 데 올라가서 돌아보니 언덕에 막혀
검은 모자만 보이다 안 보이다 하는구나.
지독하게 추운 날에 얇디얇은 옷을 입고는
자네 혼자 여윈 말 몰아서 새벽 달빛 밟겠구나.
행인들은 노래하고 주민들은 즐거운데
내가 이리 슬퍼하니 어린 종이 괴이해하네.
인생에 이별이 없을 수 없다는 걸 나도 알지만
다만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릴까 봐 두렵네.
차가운 등불 아래 마주 누워 옛일을 생각하며
소슬한 밤비소리 들을 날이 언제이려나?
이 마음을 잊을 수 없음은 자네도 잘 알 테니
아무쪼록 높은 벼슬 너무 좋아하지 말게나.

소식은 嘉祐 6년(1061) 10월 大理寺評事鳳翔府簽判에 임명되어 도성인 개봉을 떠나 鳳翔으로 가게 됨에 따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생과 헤어지게 되었다. 당시 소철이 150리 정도나 떨어진 鄭州까지 배웅해 주고 돌아갔기에, 소식은 쓸쓸하게 혼자 돌아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느낀 바를 이 시에 담았다.

이 시의 전반 네 구절에는 처음으로 겪게 된 동생과의 이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식의 심경이 그려져 있다. 제3-4구에서 “歸人猶自念庭闈, 今我何以慰寂寞”이라고 한바, 소식은 아버지와 동생의 곁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는 상상만으로 이미 적막감을 느꼈다. 그 다음 네 구절에는 자신을 배웅해 주고 돌아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동생을 걱정하는 소식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특히 “登高回首坡壟隔, 但見烏帽出復沒”에는 아쉬운 마음에 동생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지만 언덕에 막혀 보이다 안 보이다 하는 상황에서 소식이 느꼈을 안타까움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 “苦寒念爾衣裘薄, 獨騎瘦馬踏殘月”에는 추운 겨울날의 이른 새벽에 얇은 옷을 입고 멀리 개봉으로 되돌아가는 동생이 추위에 떨까 봐 안쓰러워하는 형

의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다. 시의 말미에서 소식은 “亦知人生要有別”이라고 하며 동생과의 이별을 애써 담담하게 받아들여 보고자 하지만, 지난날 동생과 했던 ‘對牀夜雨’의 약속⁷⁾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이 시에는 동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과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 등 동생을 향한 형의 애뜻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王維가 重陽節을 맞아 “나 홀로 타향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니, 명절이 되면 매년 가족 생각이 배가된다(獨在異鄉爲異客, 每逢佳節倍思親)”⁸⁾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소식 역시 설·단오·중추절·중양절 등 명절을 맞을 때마다 동생과 함께 단란하게 명절을 쇠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이를 시로 노래하곤 했다. 그 중 <단옷날 진여사를 유람했는데 조카 지·괄·원이 따라가고 자유는 주세 감독 관청에 있었다(端午游真如, 遲·适·遠從, 子由在酒局)>⁹⁾라는 시를 보자.

一與子由別,	자유와 한 번 헤어져 지낸 후로
却數七端午.	마침내 단오를 일곱 번 헤아리네.
身隨綵絲繫,	몸은 비단실을 묶는 풍속을 따라지만
心與昌歎苦.	마음은 창포절임처럼 쓰기만 했네.
今年匹馬來,	금년에는 필마로 찾아오면서
佳節日夜數.	명절을 밤낮으로 손꼽았었네.
兒童喜我至,	아이들이 내가 온 걸 기뻐하면서
典衣具雞黍.	옷을 잡혀 닭고기와 기장밥을 마련했네.
水餅旣懷鄉,	국수로 고향 생각 자아내더니
飯筒仍愍楚.	밥통으로 초나라 사람을 애도했네.
謂言必一醉,	우리 둘이 꼭 한 번 술에 취해서
快作西川語.	기분 좋게 사천 얘기 하자 했건만
寧知是官身,	어찌 알았겠나 벼슬에 매인 몸이라

7) 이에 관해서는 본고 <V. 은거의 동반자> 참조.

8) 王維, <9월 9일에 산동의 형제들을 그리워하다(九月九日憶山東兄弟)> [王維 著 / 趙殿成 箋注, 《王右丞集箋注》(四庫全書本) 卷14].

9)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224-1225쪽.

糟麴困熏煮,	지계미와 누룩과 소금 굽기에 괴롭힘 당할 줄을?
獨攜三子出,	나 홀로 세 조카만 데리고 나가
古刹訪禪祖,	오래된 사찰로 스님이나 방문하여
高談付梁羅,	고담준론은 양어와 나에게 하게 하고 ¹⁰⁾
詩律到阿虎,	시 짓기는 아호에게 하게 했나니 ¹¹⁾
歸來一調笑,	돌아와서 한바탕의 우스갯소리로써
慰此長齟齬.	늘 이가 안 맞는 이 사람을 위로하네.

이 시의 제1-2구에서 “一與子由別，却數七端午”라고 한 것은 熙寧 10년(1077) 소식이 徐州知州로 부임했을 때 동생이 자신을 따라 서주까지 와서 함께 단오를 보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7년 동안 단오를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그랬기에 동생과 단오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 큰마음 먹고 동생이 있는 筠州까지 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정작 동생은 공무로 인해 자신과 함께 보낼 수가 없게 되어, 결국 遲·适·遠 등 동생의 아들 세 명만 데리고 근처에 있는 진여사에 다녀오게 되었다. 이 시에는 7년 만에 동생과 함께 단오를 쇠면서 오붓하게 혈육의 정을 나누려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된 것을 몹시 아쉬워하는 소식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소식은 동생과 첫 번째 이별을 한 바로 다음 해인 嘉祐 7년(1062) 중앙절에 지은 〈임인년 중앙절에 봉상부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혼자 보문사 승려들의 거처에서 노닐다가 자유를 그리워하다(壬寅重九，不預會，獨遊普門寺僧閣，有懷子由)〉¹²⁾라는 시에서도 “동생이 그리워 눈물이 흠어지

10) 이 구절에 대한 소식의 自註에 “양과 나는 지와 괘의 어릴 적 이름이다(梁·羅，遲·适小名也)”라고 한 바와 같이, 梁과 羅는 각각 소철의 아들 蘇遲와 蘇适의 어릴 적 이름이다.

11) 소식의 시 <곧 筠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먼저 지·괘·원 등 세 조카에게 부친다(將至筠，先寄遲·适·遠三猶子)〉 제7구에 대한 소식의 自註에 “원이 어릴 적 이름이 호아이다(遠，小名虎兒)”라고 했다.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223쪽.

12)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51쪽.

않는 구름 같고, 고향 생각에 마음이 기러기 따라 남으로 날아가네(憶弟淚如雲不散, 望鄉心與雁南飛)”라고 하여, 동생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기탄없이 드러냈다.

소식에게는 이처럼 타지에서 명절을 맞게 되었을 때 동생을 그리워하며 혈육이면서도 명절을 함께 쇠지 못하는 아쉬움을 노래한 시가 많다. 그러나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소식은 동생에 대한 걱정과 혈육의 정을 노래하는 시를 자주 지었다.

내가 일로 인하여 어사대 감옥에 구속되어 있을 때 간수들이 나를 좀 괴롭혔다. 스스로 생각해 보니 견디지 못하고 옥중에서 죽어 버린다면 자유와 작별 인사도 할 수 없겠기에 시를 두 수 지어서 간수 양성에게 주어 자유에게 전해 달라고 하였다(予以事繫御史臺獄, 獄吏稍見侵, 自度不能堪, 死獄中, 不得一別子由, 故作二詩授獄卒梁成, 以遺子由, 二首)¹³⁾ 其一

.....

是處青山可埋骨,
他時夜雨獨傷神。
與君今世爲兄弟,
又結來生未了因。

.....

어느 곳이든 청산에 뼈를 묻을 수 있지만
훗날 밤비 내리면 혼자 상심하겠구나.
자네와 이번 생에 형제가 되었으니
못다 한 인연은 다음 생에 또 맺으세나.

이 시는 소식이 44세 되던 해(1079년)에 烏臺詩案으로 인하여 御史臺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지은 것이다. 당시 옥바라지를 하고 있던 장남 蘇邁가 심각한 상황이 생길 때에만 생선을 넣어 주기로 했는데, 양식을 구하러 가느라 친척에게 옥바라지를 부탁하면서 깜빡 잊고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친척이 모르고 생선을 넣어 주는 바람에, 외부 상황을 모르는 소식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착각하고 간수에게 부탁하여 몰래 소철에게 전하기 위해 이 시를 지었다고 전해 온다.¹⁴⁾ 형이 동생에

13)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998-1000쪽.

14) 葉夢得, 《避暑錄話》(四庫全書本) 卷下 및 林語堂 著/張振玉 譯, 《蘇東坡傳》,

게 남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에서 소식은 자신이 죽고 나면 상심에 젖은 채 자신의 장례를 치르고 또 비가 내리면 자신과 했던 ‘對牀夜雨’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슬픔에 빠질 동생의 모습을 상상하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는 한편,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써 이번 생에 형제간의 인연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쉬워하며 다음 생에 이 인연을 다시 이어가자고 기약하기까지 하였다. 죽음을 앞두고 동생을 걱정하는 형의 마음이 더욱 절절하게 표현된 시라 하겠다.

이처럼 동생을 아끼고 사랑한 소식은 동생이 생일을 맞거나 동생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시를 지어서 축하해 주기도 했다. 儋州에서 유배 생활 중이던 元符 2년(1099) 10월 25일, 소식은 동생의 회갑을 맞아 시를 두 수 지었다. 그 가운데 한 수인 <자유의 생일(子由生日)>¹⁵⁾에서 그는 “오로지 바라는 건 머리 허연 이 형이, 해마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네(但願白髮兄, 年年作生日)”라며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마다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 즉 동생이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냈다. 또 같은 날 지은 <황자목 지팡이로 자유의 생일을 축수하다(以黃子木拄杖爲子由生日之壽)>¹⁶⁾라는 시에서는 “해남에는 멋있는 초목은 없고, 황자라고 부르는 야생 과수가 있네. 단단하고 가는 데다 마디가 많아, 천년의 재질을 임의로 손에 잡고 몸을 의지하네. 아! 내가 처음으로 이걸 잘라 지팡이를 만들었나니, 어찌면 이로 인해 세상에서 쓸지도 모르겠네. 이것이 이제 이 늙은이 손에서 떠나, 선생의 안식과 짝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네. 우리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적에, 신선들의 지팡이 못지 않을 것이네(海南無佳植, 野果名黃子. 堅瘦多節目, 天材任操倚. 嗟我始剪裁, 世用或緣此. 貴從老夫手, 往配先生几. 相從歸故山, 不愧仙人杖)”라고 한바, 동생의 회갑을 맞아 그의 장수를 빌기 위해 손수 황자목 지팡이를 만들어 선물로 보내면서 그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이미 회갑을 넘겨 머리가 허연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179쪽 참조.

15)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2319-2320쪽.

16)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2320-2321쪽.

형이, 그것도 유배지에서 손수 만든 지팡이를 선물했다는 것은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음을 뜻한다. 특히 마지막의 “相從歸故山, 不愧仙人杞”라는 두 구절에는 예전부터 동생과 함께 고향에서 은거하고 싶어 한 소식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는 남은 유배 생활을 함께 잘 버텨 보자는 격려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林語堂도 말한 바와 같이 형제지간의 우애와 영고성쇠 과정에 있어서의 두터운 혈육의 정은 소식이 평생토록 읊은 제재였다고¹⁷⁾ 할 수 있다.

Ⅲ. 절친한 詩友

소식에게 있어 소철은 누구보다 절친한 詩友였다. 소식은 소철과 어릴 때부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서로 시를 주고받았다. 현전하는 소식 시집의 맨 앞에 수록되어 있는 <곽륜(郭綸)>부터 그 이하 몇십 수가 모두 소철과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소재에 대해 지은 것이라는 사실이 이것을 말해 준다.

嘉祐 4년(1059) 말에 소식은 어머니의 삼년상을 마친 후 아버지 蘇洵 및 동생 소철과 함께 고향을 떠나 개봉으로 갔는데, 이때 배를 타고 1,700리가량을 가야 했기에, 두 달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삼부자가 함께 시와 賦를 지었다. 그리고 이때 지은 100편을 모아 <南行集>을 만들었다.¹⁸⁾ 이것은 소철과 소순이 소식의 가장 이른 시우였음을 뜻한다.

소식은 이 시집의 서문인 <南行前集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해년(1059)에 아버지를 모시고 초 지방으로 갈 때 배 안에서 할 일이

17) 林語堂 著/張振玉 譯, <蘇東坡傳>, 43쪽 참조.

18) 王宗稷, <東坡先生年譜·嘉祐四年>(王水照 編, <宋人所撰三蘇年譜彙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318쪽) 및 王文誥, <蘇文忠公詩編注集成總案>(成都: 巴蜀書社, 1985) 卷1 31쪽 참조.

없어 바둑을 두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해 보았지만 집에서 하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 여기에는 가친의 작품과 동생 철의 글이 다 수록되어 있어서 모두 100편인데 이것을 《남행집》이라고 부른다.(己亥之歲, 侍行適楚, 舟中無事, 博奕飲酒, 非所以爲閨門之歡. …… 蓋家君之作與弟轍之文皆在, 凡一百篇, 謂之《南行集》.)¹⁹⁾

이때 지은 소식과 소철의 시를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의 詩題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일부 글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리고 소철이 먼저 지은 시에 소식이 차운한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동일한 소재를 두고 삼부자가 함께 시를 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Johan Huizinga는 시 짓기를 놀이의 일종으로 파악했거니와,²⁰⁾ 소식의 〈南行前集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씨 삼부자 역시 오랜 여행의 지루함을 달기 위해 바둑 두거나 술 마시기와 같은 일종의 ‘놀이’로 생각하며 시를 지었던 것인데, ‘놀이’를 보다 흥미롭게 하는 데에는 승부욕을 자극하여 서로 재주를 겨루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식도 〈자유의 시를 기록하다(記子由詩)〉²¹⁾에서 “8월 4일에 자유와 함께 왔다가 짧은 시 세 수를 남겼다. …… 자유의 시가 나보다 훨씬 낫다(八月四日與子由同來, 留小詩三首 …… 子由詩過吾遠甚)”라고 한 것을 보면 그에게도 소철과 詩才를 겨루어 보려는 승부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소식은 차운시 창작을 통해 소철과 시재를 겨루어 보기도 했지만, 그보다 수준을 더 높여 〈강 위에서 눈을 만났는데 구양수체를 본떠 ‘소금·옥·학·백로·숨·나비·비행·춤’ 따위를 비유로 삼지 않고 또 ‘皓·白·潔·素’ 등의 글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자유의 시에 차운한다(江上值雪, 效歐陽體, 限不以鹽玉鶴

19) 暴拯群 主編, 《注譯本蘇東坡全集第十冊》,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8, 5307쪽.

20)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J.Huizinga, Boston: The Beacon Press, 1964, 119쪽)에 “Poiesis, in fact, is a play-function”이라고 했다.

21)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0, 2128쪽.

驚絮蝶飛舞之類爲比, 仍不使皓白潔素等字, 次子由韻》²²⁾와 같은 시를 짓기도 했다. 이 시는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양수체를 모방하여 비유를 제한하고 특정 글자 사용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소철의 시에 차운까지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제약 조건을 두어 시의 창작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놀이’를 더욱 고급화했다.

이 밖에도 소식이 소철을 시우로 간주하고 그에게 보낸 여러 가지 유형의 다른 시들이 있다.

먼저, 和陶詩가 있다. 소식은 陶淵明의 시 〈음주 20수(飲酒二十首)〉에 차운하여 지은 〈도연명의 〈음주 20수〉에 화답하다(和陶〈飲酒二十首〉)〉²³⁾ 가운데 其十四에서 다음과 같이 소철에 대해 묘사했다.

我家小馮君,	우리 집 소풍군(소철)은
天性頗醇至.	천성이 매우 순박하네.
淸坐不飲酒,	술도 마시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지만
而能容我醉.	내가 취하는 것을 용납해 줄 줄 아네.
.....

그리고 이 시의 서문에서 “나는 주량이 아주 적지만 항상 술잔 잡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이에 도연명의 시 〈음주 20수〉에 화답하여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를 내 동생 자유와 조무구 학사에게 보여 주고자 한다(吾飲酒至少, 常以把盞爲樂. 因和淵明〈飲酒二十首〉, 庶以仿佛其不可名者, 示舍弟子由·晁无咎學士)”라고 했다. 이처럼 자신이 지은 화도시를 소철과 蘇門四學士 중의 한 사람인 晁補之에게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은 소식이 그들을 그만큼 절친한 시우로 여긴 나머지 그들에게 자신의 시를 과시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자신의 시에 자극을 받아 그들도 화도시를 한 번 지어서 보여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을

22)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20-21쪽.

23)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881-1892쪽.

수도 있겠다.²⁴⁾

이 밖에, <도연명의 <술을 끊다>에 화답하다(和陶<止酒>并引)>²⁵⁾·<도연명의 <움직이지 않는 구름>에 화답하다(和陶<停雲>四首并引)>²⁶⁾라는 화도시도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식이 소철에게 직접 주거나 부친 것인 바, 여기에는 주로 소철을 떠올리며 그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도연명의 <연일 내리는 비에 혼자 술을 마시다>에 화답하다(和陶<連雨獨飲>二首)>²⁷⁾라는 화도시는 소철을 吟詠의 대상으로 삼아 형식상 도연명시의 韻字를 차용하되 내용상 소철과 관련지어 지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소식이 화도시의 형식을 빌려 소철과 여러 차례 교유했음을 알 수 있는바, 이것 역시 소식이 소철을 절친한 시우로 여긴 예라 하겠다.

소식은 ‘胸有成竹說’²⁸⁾이라는 유명한 畫論을 제시한 文湖州竹派의 대표

24) 실제로 소철은 소식이 자신에게 보내 준 모든 화도시에 빠짐없이 차운했다. 그리고 <도연명의 <산해경을 읽다>에 화답하다(和陶<讀山海經>并引)>·<도연명의 <권농>에 화답하다(和陶<勸農>并引)> 등의 일부 화도시는 소식이 소철에게 보낸 시가 아닌데도 소철이 나중에 그것을 보고 차운했다.

25) 이 시의 서문에 “정축년에 나는 해남으로 폼적되었고, 자유도 뇌주로 폼적되었다. 5월 11일에 등주에서 서로 만나 뇌주까지 동행했다. 6월 11일에 서로 작별하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다. 나는 당시 치질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고 자유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도연명의 시를 읊조리며 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충고했다. 이에 원래의 시에 화답하여 헤어질 동생에게 주며 정말로 끊기를 바란다(丁丑歲, 予謫南海, 子由亦貶雷州. 五月十一日相遇於藤, 同行至雷. 六月十一日相別渡海. 余時病痔呻吟, 子由亦終夕不寐, 因誦淵明詩, 勸余止酒. 乃和原韻, 因以贈別, 庶幾真止矣)”라고 했다.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2245쪽.

26) 이 시의 서문에 “입동 이래로 비바람이 치지 않은 날이 없어 바닷길이 끊어지는 바람에 자유의 편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도연명의 시 <움직이지 않는 구름(停雲)>에 화답하여 부친다(自立冬以來風雨無虛日, 海道斷絕, 不得子由書. 乃和淵明<停雲>詩以寄)”라고 했다.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2269쪽.

27) 이 시 其一에 “이 밖에 또 한 사람 자유가 있나니, 나가고 들어오에 있어 함께 절뚝거렸네(此外一子由, 出處同徧僂)”라고 했다.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2252쪽.

28) 소식은 <문여가가 그린 운당곡의 누운 대에 관한 기록(文與可畫筥谷偃竹記)>에서 “대나무를 그릴 때는 반드시 마음속에 완성된 상태의 대나무를 구상

적인 화가였던 만큼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리하여 그는 소철과 함께 동일한 그림에 대한 감상평을 읊은 題畫詩를 지어 서로의 견해를 교류하기도 했다. 소식이 소철의 시에 화답하여 지은 제화시로는 <개원사에 있는, 오도자가 부처님의 입적을 그린 그림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여 자유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그림에 대하여 지은 시에 화답하다(記所見開元寺吳道子畫佛滅度, 以答子由題畫文殊·普賢)>²⁹⁾·<이백시가 소장한 한간의 말 그림에 쓴 자유의 시에 차운하다(次韻子由書李伯時所藏韓幹馬)>³⁰⁾·<자유가 왕진경이 그린 산수화에 한 수를 쓰자 왕진경이 이에 화답하여 지은 두 수에 차운하다(次韻子由書王晉卿畫山水一首而晉卿和二首)>³¹⁾·<왕진경의 산수화에 쓴 자유의 시에 차운하다(次韻子由書王晉卿畫山水二首)>³²⁾·<청문 노인이 진 땅 여인과 상강 여인의 모습을 전파하기 위해 그린 그림에 쓴 자유의 시에 차운하다(次韻子由書清汶老所傳秦湘二女圖)>³³⁾ 등 5題 7首가 있다.

더 나아가 소식은 시를 통해 소철과 서예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도 했다. “서예에 있어서 독창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 소식의 서예관을 비교적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³⁴⁾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글씨를 논한 자유의 시에 차운하다(次韻子由論書)>³⁵⁾를 보자.

한 다음, 붓을 잡고 오랫동안 그것을 응시하다가 그리고 싶은 부분이 보이면 얼른 일어나 붓을 휘둘러 단숨에 끝내야 한다. 자기가 본 것을 쫓기를 마치 토끼가 나타난 것을 보고 매가 달치듯 해야지, 조금이라도 늦추면 그리려는 대상이 사라져 버린다(畫竹必先得成竹於胸中, 執筆熟視, 乃見其所欲畫者, 急起從之, 振筆直遂, 以追其所見, 如兔起鶻落, 少縱則逝矣)”라는 독특한 회화 이론을 제시했다. 賈濱 主編, 《注譯本蘇東坡全集第八冊》,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8, 4341쪽.

29)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70-172쪽.

30)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502-1505쪽.

31)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770-1772쪽.

32)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772-1773쪽.

33)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2007-2008쪽.

34) 우재호, <蘇軾의 書藝詩를 통해 본 書藝觀>, 《中國語文學》 제71집, 2016, 6쪽.

吾雖不善書， 曉書莫如我。 苟能通其意， 常謂不學可。 貌妍容有隴， 璧美何妨橢。 端莊雜流麗， 剛健含婀娜。 好之每自譏， 不獨子亦頗。 …… 世俗筆苦驕， 衆中強嵬駝。 鍾張忽已遠， 此語與時左。	내 비록 서예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서예를 알기로는 나만한 사람이 없으니 진실로 자기 마음속으로 통달한다면 배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항상 말하네. 고운 얼굴이라면 쩡그러도 용납되고 아름다운 벽옥이라면 길쭉한들 어떠하리? 단정하고 엄숙함 속에 유려함이 섞여 있고 굳세고 씩씩함 가운데 아리따움이 함유되는 것 그런 걸 좋아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 매번 자책하나니 자네도 생각이 지나치지만 자네만 그런 건 아니라네. …… 요즘 세상의 붓놀림은 너무나 교만하여 무리 속에서 억지로 우뚝하게 솟아오르니 중요나 장지로부터 갑자기 너무 멀어져서 ³⁶⁾ 이 말이 시의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	--

소식이 소철에게 岐陽十五碑를 보내자 그것을 받은 소철이 <자침 형이 기양십오비를 부쳐 보내서 보여 주다(子瞻寄示岐陽十五碑)>³⁷⁾라는 시를 지어 소식에게 보낸바, 이 시에서 “우리 형은 스스로 글씨를 잘 써, 가져 온 것 중에 쓸 만하지 않은 것이 없다네(吾兄自善書，所取無不可)”라고 하며 형의 서예 실력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자신은 서예를 잘하지 못함을 자책하였다. 이에 소식이 서예는 자고로 개성과 변화가 중요하다고 설파하며 소철을 위로하기 위해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소식은 이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철과의 시를 통한 감정과 생각의 교류를 시도했다. 이것은 소식에게 있어서 소철이 누구보다 절친한 시우였

35)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209-211쪽.

36) 孫過庭의 《書譜》(四庫全書本)에 “자경(王獻之)이 일소(王羲之)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일소가 중요와 장지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子敬之不及逸少，猶逸少之不及鍾張)”라고 했다. 이것은 古書法을 따르는 옛날 사람일수록 글씨가 훌륭하다는 뜻이다.

37) 蘇轍 著/曾棗莊·馬德富 校點, 《欒城集》, 22쪽.

음을 뜻한다.

IV. 정치적 동지

소식이 활동했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新法派와 舊法派의 대립이 매우 격렬하던 때였다. 당시 조정의 실권자였던 王安石은 부국강병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均輸法·靑苗法 등의 新法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司馬光·歐陽修 등 원로 대신을 주축으로 하는 구법파는 이러한 신법이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걱정하며 이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소식은 당시 신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리하게 신법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구법파를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신법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고, 고통받는 백성의 입장에서 신법파의 과오를 비판하는 시를 짓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소식은 신법파 인사들에게 항상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기에 신법파 인사들이 소식을 제거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소식이 湖州知州로 부임하여 황제에게 올린 〈호주 부임 보고 상소(湖州謝表)〉를 빌미로 신법파 인사들이 소식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소식의 시문 가운데 조금이라도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 것을 전부 찾아 자기들 구미에 맞게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식을 모함했다. 결국 神宗은 御史臺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라는 어명을 내렸으니, 이것이 바로 소식의 운명을 뒤바꿀 만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烏臺詩案이다.³⁸⁾

오대시안이 발생했을 때, 소식은 어사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자술서(供狀)〉를 쓰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저는 장방평·왕선·이청신·황정건·사마광……소철·왕공……과 서로 알고 지내는바

38) 류중목, 《팔방미인 소동파》, 서울: 신서원, 2005, 127-130쪽 참조.

그들은 저와 생각이 같아, 즉 조정의 신법 조치와 뜻이 맞지 않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조정에서 그다지 중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풍자하는 글을 부쳐 보낸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軾與張方平·王洙·李清臣·黃庭堅·司馬光……蘇轍·王鞏……相識, 其人等與軾意相同, 卽是與朝廷新法時事不合, 及多是朝廷不甚進用之人, 軾所以將譏諷文字寄與如後)³⁹⁾라는 말이 있다. 이는 신법이나 신법파를 풍자하는 내용이 담긴 소식 시를 받은 사람은 결국 소식의 정치적 동지라는 뜻이다.

소식이 이 〈자술서(供狀)〉에서 거명한 사람들 중에는 소철도 끼여 있었다. 이것은 소철이 소식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했다는 뜻인바, 소식의 시 중에는 정치적 동지로서의 소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도 많다.

우선, 〈항주에 막 도착하여 자유에게 부친 절구 두 수(初到杭州寄子由二絕)〉⁴⁰⁾ 가운데 其一을 보자.

眼看時事力難任,	세상사를 보노라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貪戀君恩退未能,	성은을 잊지 못해 물러나지도 못하네.
遲鈍終須投劾去,	아둔한 몸 어차피 사직하고 떠나야 할 텐데
使君何日換韓丞.	태수께서 언제나 귀머거리 보좌관을 바꾸려나?

이 시는 소식이 신법파와의 정쟁을 피하기 위해 외직을 자청하여 항주 통판으로 부임했을 때 지은 시로, 신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면서도 그것을 강행해야 하는 심리적 갈등과 어찌해 볼 수 없는 무력감을 노래했다. “眼看時事力難任”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노라니 차마 신법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말이고, “貪戀君恩退未能”은 관직을 그만두고 싶지만 성은을 입어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는 말이다. 이 시에는 신법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자조가 반영되어 있는바, 이러한 자신의 정치적 좌절을 하소연할 상대로 소철이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이 시를 지어서 그에게 부친 것이다.

39) 朋九萬 撰, 《東坡烏臺詩案》, 北京: 中華書局, 1985, 4-5쪽.

40)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314쪽.

다음으로, <누리를 잡으러 부운령으로 갔다가 산행에 지쳤을 때 동생 자유를 그리워하다(捕蝗至浮雲嶺, 山行疲茶, 有懷子由弟二首)>⁴¹⁾ 其一을 보자.

西來烟障塞空虛,
灑徧秋田雨不如.
新法清平那有此,
老身窮苦自招渠.
無人可訴烏銜肉,
憶弟難憑犬附書.
自笑迂疎皆此類,
區區猶欲理蝗餘.

서쪽으로부터 온 뿌연 안개가 허공을 꽉 메우더니
가을 눈에 빼곡하게 앉는 것이 비보다 더하네.
신법이 맑고 공평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늙은 이 몸의 곤궁과 고통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네.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가도 말해 줄 사람 없고
동생이 그림지만 개에게 편지를 부탁하기 어렵네.
처세가 서툴러 항상 이 따위라 스스로를 비웃나니
구차하게 여전히 남은 누리나 잡으자 하네.

이 시는 소식이 杭州 浮雲嶺의 시골 마을에 누리 잡는 일을 독려하러 갔다가 문득 소철이 그리워져서 지은 것으로,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신법 파에 대한 증오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가 드러나 있다. 이 시에서 “西來烟障塞空虛, 灑徧秋田雨不如”는 누리떼 피해가 극심한 농촌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新法清平那有此”는 신법의 부당성을 비꼰 것이다. 즉, 신법 파의 주장이 옳다면 신법의 시행으로 백성들이 편안하고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누리떼 때문에 이처럼 살기 힘들다며 농촌의 현실과 거리가 먼 신법의 비현실성을 조소한 것이다. 그렇지만 소식 자신에게 별다른 해결책이 없으니 그저 누리나 잡음으로써 이렇게라도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자조적인 말로 마무리했다.

이 시의 其二 후반 네 구절에서 소식은 “숲속에서 혼자 잘 땀 꿈자리가 좋더니만, 속세를 돌아보니 우환이 가득하네. 말을 죽이고 마차를 부수고 이곳에서 떠날 테니, 자네가 온들 어디 가서 내 행방을 묻겠나?(獨眠林下夢魂好, 回首人間憂患長. 殺馬毀車從此逝, 子來何處問行藏)”라고 했는데,

41)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579-580쪽.

이에 대해 오대시안의 <자술서(供狀)>에서 “이는 신법 가운데 청묘법과 조역법 등의 일이 번잡하여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이것 역시 저 자신의 재주와 능력이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意謂新法青苗助役等事, 煩雜不可辨, 亦言己才力不能勝任也)”⁴²⁾라고 밝혔으니, 소식 스스로도 이 시에 신법과를 풍자하는 뜻이 있음을 시인했던 것이다.

이어서 <자유를 희롱하다(戲子由)>⁴³⁾를 보자.

.....
任從飽死笑方朔, 肯爲兩立求秦優.	배 터져 죽을 난쟁이야 동방삭을 비웃어 보려무나. 기꺼이 빗속에 섰을지언정 진나라 가수야 되겠느냐!
.....
讀書萬卷不讀律, 致君堯舜知無術. 勸農冠蓋鬧如雲, 送老蠶鹽甘似蜜.	책을 만 권이나 읽었어도 법률 책은 읽지 않아 우리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아네. 권농의 갓과 수레가 구름처럼 부산하여도 늙은이에게는 나물과 소금이 꿀같이 달다네.
.....
平生所慚今不恥, 坐對疲氓更鞭箠. 道逢陽虎呼與言, 心知其非口諾唯.	평생 부끄럽게 여겼지만 지금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앉아서 지친 백성을 대하며 채찍질까지 한다네. 길에서 양호를 만나면 그를 불러 얘기하나니 속으로는 그른 줄 알면서도 입으로는 맞장구친다네.
.....

이 시는 소식이 항주통관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熙寧 4년(1071) 12월에 지은 것이다. 당시 소철은 청묘법의 실시를 반대하다가 왕안석의 미움을 사서 陳州의 州學教授로 밀려나 있었는데, 이 시에서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의연하게 지내는 소철의 기품을 해학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마음에 없으면서도 백성을 핍박하고 있는 자신의 못난 행태를 자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42) <자유에게 시를 보내다(與子由詩)>(朋九萬 撰, 《東坡烏臺詩案》, 14쪽)

43)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324-326쪽.

않고 오히려 폄박하는 고관대작들의 무사안일과 무능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 시 역시 오대시안의 빌미가 된 작품 가운데 하나였다. “讀書萬卷不讀律, 致君堯舜知無術”은 신법을 중시한 조정에서 律學을 흥성시키려 하자 그것을 반대하며 비꼰 것이고, “勸農冠蓋鬧如雲, 送老蠶鹽甘似蜜”은 조정에서 새로 등용한 신법과 관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까다롭게 굴며 각 지역 관리들을 괴롭히는 일을 풍자한 것이다. 그리고 “平生所慚今不恥, 坐對疲氓更鞭箠”는 조정에서 급박하게 엄법을 시행하는 것을 풍자한 것이며, “道逢陽虎呼與言, 心知其非口諾唯”는 새로 선발된 鹽司를 싫어하면서도 그들과 감히 논쟁할 수 없기에 이들을 조롱한 것이다.⁴⁴⁾

李清臣과 소철이 주고받은 시에 화답한 <이방직과 자유의 시에 차운으로 화답하다(次韻答邦直·子由五首)>⁴⁵⁾에도 신법파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이 시의 其四에 “원추와 난새가 조정을 메웠다고 들었나니, 갈매기에 게까지 그물을 치지는 않을 것이네(聞道鷓鴣滿臺閣, 網羅雁不到沙鷗)”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신법파 인사들을 원추와 난새에 비유하고 소식 자신을 갈매기에 비유하여, 조정의 인사 정책에 관한 불만과 냉소를 담은 구절이라 할 수 있다. 또 其五에서는 “주운이 되어 지하에서 노닐 엄두도 못 냈네요(未許朱雲地下遊)”, “고향이 그리울 땐 <등루부>나 읍을 일이지요(思歸時欲賦登樓)”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소식이 오대시안의 <자술서(供狀)>에서 각각 “저는 누차 신법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했으나 제 주장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 자신을 주운에 비유한 것입니다(軾爲屢言新法不便, 不蒙施行, 以朱雲自比)”, “저는 누차 신법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했으나 제 주장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직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과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어서 저 역시 이 부를 짓고 싶어 한 것입니다(軾爲屢言新法不便, 不蒙施行, 有罷官懷鄉之意, 亦欲作此賦也)”⁴⁶⁾라고 했

44) 소식의 <자술서(供狀)> 가운데 <왕선과 시부를 주고받다(與王詵往來詩賦)>(朋九萬 撰, 《東坡烏臺詩案》, 5쪽) 참조.

45)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739-742쪽.

46) <왕선과 시부를 주고받다(與王詵往來詩賦)>(朋九萬 撰, 《東坡烏臺詩案》, 5쪽)

다. 전자는 漢나라 成帝에게 安昌侯 張禹를 처형해야 한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한 주운처럼⁴⁷⁾ 강경하게 신법의 문제점을 간하지 못한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자책한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조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이 시는 급기야 신법과의 비위를 거슬러서 신법과 인사들이 오대시안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들은 소식이 신법과의 정책을 비판하며 그로 인한 좌절감과 불만을 토로하거나 자조한 것이다.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가 아니라면 조정에 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신랄한 정치적 비판은 정적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에게도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소식이 소철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시를 여러 차례 보내 자신의 속내를 토로한 것은 그를 매우 가까운 정치적 동지로 여겼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하겠다.

V. 은거의 동반자

소식은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은거에의 염원을 품고 있었다. 다만 그는 가슴속 깊이 우국애민 사상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도연명처럼 관직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전원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결국 평생의 대부분을 ‘中隱’⁴⁸⁾의 상태로 지냈다. 그랬기 때문에

47) 班固, 《漢書》(四庫全書本) 卷67 〈朱雲傳〉 참조.

48) 白居易의 시 〈中隱〉(白居易 著/顧學頤 校點, 《白居易集》, 北京: 中華書局, 1988, 490쪽)에 “대은은 조정과 시가지에 사는 것이고, 소은은 구릉과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네. 구릉과 울타리 안은 너무나 쓸쓸하고, 조정과 시가지는 너무 시끄러우니, 차라리 중은을 하여, 관직 속에 은일하는 게 더 낫겠네. 벼슬길로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전원에서 사는 것 같기도 하며, 바쁜 것도 아니요 한가한 것도 아니라네(大隱住朝市, 小隱入丘樊. 丘樊太冷落, 朝市太囂諠. 不如作中隱, 隱在留司官. 似出復似處, 非忙亦非閑)”라고 했는데, 소식은 백거이의 隱逸觀을 받아들여 그의 시 〈6월 27일에 망호루에서 지은 절구 다섯 수(六月二十七日望湖樓醉書五絕)〉 其五(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소식의 많은 시문 속에 은거에 대한 동경과 염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언젠가는 자신도 전원으로 돌아가 진정한 은거인 ‘小隱’을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도 적잖이 드러나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로 소식이 소철과 함께 은거하고 싶어 했다는 점이다.

소식은 한창 젊은 시절부터 소철과 함께 은거하고 싶어 했다. 소식 형제는 개봉에서 制科 시험을 준비할 때 韋應物의 시 가운데 “나는 군수직을 그만두고 떠났지만, 그대들은 바깥일에 매여 있으니, 어찌 알겠나 바람 불고 비 오는 밤에, 다시 이렇게 침상 말대고 잘 수 있을는지?(余辭郡符去, 爾爲外事牽. 寧知風雨夜, 復此對牀眠?)”⁴⁹⁾라는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들도 일찌감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침상을 나란히 놓고 마주 누워 밤비 소리를 들으며 정담을 나누다가 잠들자고 약속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소철의 시 〈소요당에서 함께 자다(逍遙堂會宿二首)〉의 서문⁵⁰⁾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바, 이 서문에서 소철은 소식이 예전에 자신과의 이별을 앞두고 지은 시 〈신축년 11월 19일 정주 서문 밖에서 자유와 이미 헤어진 후 말 위에서 시를 한 편 지어 그에게 부치다(辛丑十一月十九日, 既與子由別於鄭州西門之外, 馬上賦詩一篇寄之)〉⁵¹⁾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소식의 이 시에 “차가운 등불 아래 마주 누워 옛일을 생각하며, 소슬한 밤비소리 들을 날이 언제이려나?(寒燈相對記疇昔, 夜雨何時聽

341쪽)에서 “소은을 못 이루어 중은을 하고 있나니, 오래 한가할 수 있다면 잠시 한가한 것보다 나으리(未成小隱聊中隱, 可得長閑勝暫閑)”라고 했다.

49) 〈전진과 원상에게 보이다(示全眞元常)〉[韋應物, 《韋蘇州集》(四庫全書本) 卷3].
50) 이 시의 서문에 “나는 어릴 때 자첨 형을 좇아 책을 읽었는데 하루도 서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장성하여 사망으로 벼슬길에 나아갈 무렵 위소주(위응물)의 시를 읽다가 ‘어찌 알겠나 바람 불고 비 오는 밤에, 다시 이렇게 마주보고 잘 수 있을는지?’라는 구절에 이르자, 슬픈 마음으로 그것에 감동하여, 이에 일찌감치 관직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자고 약속하였다(轍幼從子瞻讀書, 未嘗一日相舍. 既壯, 將遊宦四方, 讀韋蘇州詩, 至‘安知風雨夜, 復此對牀眠’, 惻然感之, 乃相約早退, 爲閑居之樂)”라고 했다. 蘇轍 著/曾棗莊·馬德富 校點, 《欒城集》, 158쪽.

51)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95-96쪽.

蕭瑟)”라는 구절이 있다.

이 시를 지은 해는 嘉祐 6년(1061)으로 소식이 26세 되던 해였다. 소식은 이처럼 아주 젊은 나이에 이미 소철과 ‘對牀夜雨’의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 뒤로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 ‘對牀夜雨’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었다. ‘對牀夜雨’를 갈망하는 그의 심경은 다음과 같이 그의 시에 종종 나타난다.

초가을에 자유에게 부치다(初秋寄子由)⁵²⁾

.....
雪堂風雨夜, 已作對牀聲.	설당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침상 맞댄 소리가 이미 들려온다네.

동부에서 빗속에 자유와 작별하다(東府雨中別子由)⁵³⁾

.....
對牀定悠悠, 夜雨空蕭瑟. 起折梧桐枝, 贈汝千里行. 歸來知健否, 莫忘此時情.	침상 마주할 일은 정녕코 아득한데 밤비만 공연히 소슬하게 내리네. 일어나 오동나무 가지를 꺾어 자네에게 주고는 천 리 길을 떠나나니 돌아올 때 건강할지 어떨지야 알랴만 지금의 이 심정을 잊지 말기를.

첫 번째 시는 元豐 6년(1083) 가을에 소철을 그리워하며 그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두 번째 시는 元祐 8년(1093) 定州知州로 부임해 가기 위해 소철과 작별하면서 지은 것이다. 회갑이 다 되어 가는 고령에 고향과 반대 방향의 변방으로 떠나게 된 터라, 소철과 함께 은거하기로 한 ‘對牀夜雨’의 약속

52)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169-1170쪽.

53)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991-1992쪽.

을 지킬 날이 더욱 요원하게 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구절에서 “莫忘此時情”이라고 하여 오랫동안 못 이룬 ‘對牀夜雨’의 꿈을 정주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각오를 덧붙였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對牀夜雨’와 관련된 표현을 쓴 경우 이외에도, 소식에게는 하루빨리 관직에서 물러나 소철과 함께 전원에서 은거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시가 상당히 많다. 우선, 〈서주지주의 임기를 마치고 남경으로 가는 길에 말 위에서 붓을 놀려 자유에게 부치다(罷徐州, 往南京, 馬上走筆寄子由五首)〉⁵⁴⁾ 가운데 其四와 其五의 일부를 살펴보자.

其四

.....
歸耕何時決,	귀농 계획은 언제나 결행할 텐가?
田畝我已卜.	땅과 집은 내가 이미 점쳐 뒀다네.

其五

卜田向何許,	농사를 지을 땅을 어디에다 정했나?
石佛山南路.	석불산 남쪽의 길 옆이라네.
下有爾家川,	그 아래에 집 가까이 흐르는 시내가 있어
千畦種秔稌.	천 이랑에 메벼와 찰벼를 심을 수 있네.
山泉宅龍蜃,	산속의 웅달샘에 용과 이무기가 살고 있어
平地走膏乳.	평평한 땅에 기름과 젖이 달린다네.
.....

其四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이미 땅과 집을 점쳐 두었으니 하루빨리 귀농 계획을 결행하자고 한 것을 통해 은거를 향한 소식의 열망이 매우 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其五의 전반부에서 귀농할 땅과 집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해 놓았다. 이 시는 시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소식이 徐州

54)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935-939쪽.

知州에서 湖州知州로 옮기라는 명을 받고 北宋 때의 南京인 지금의 河南省 商丘로 가는 길에 말 위에서 지어 소철에게 부친 것으로, 하루빨리 소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기를 바라는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소식이 막 黃州에 유배 갔을 때, 소철이 소식의 가족을 데리고 오다가 풍랑으로 인해 巴河口에서 발이 묶여 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마중 가며 지은 시 두 수에도 소철과 함께 은거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금년 1월 14일에 자유와 진주에서 헤어졌는데 5월에 자유가 다시 제안으로 왔기에 시로써 그를 맞이하다(今年正月十四日, 與子由別於陳州, 五月, 子由復至齊安, 以詩迎之)⁵⁵⁾

驚塵急雪滿貂裘,	놀란 먼지와 쏟아지는 눈이 담비 갓옷에 가득할 제
淚灑東風別宛丘。	동풍에 눈물 뿌리며 완구를 떠난 뒤로
又向邯鄲枕中見,	또다시 한단의 베개 위에서나 보았는데
却來雲夢澤南州。	급기야 네가 운몽택의 남쪽 고을로 왔구나.
睽離動作三年計,	한 번 헤어졌다 하면 삼 년을 헤아리니
牽挽當爲十日留。	아무래도 열흘은 붙잡아야 되겠구나.
早晚青山映黃髮,	조만간에 청산이 누런 머리에 비치면
相看萬事一時休。	서로 보기만 해도 만사가 일시에 그만이리.

새벽에 과하구로 자유를 마중하러 가다(曉至巴河口迎子由)⁵⁶⁾

.....
此邦疑可老,	이 고향은 노년을 보낼 만하나니
修竹帶泉石。	샘가에 키 큰 대가 떠를 두르고 있다네.
欲買柯氏林,	가 씨의 숲을 사서 은거하러 하는데
茲謀待君必。	이 계획은 그대의 지지가 필요하다네.

위의 시 두 수를 지을 무렵, 소식은 한동안 헤어져 있던 소철과 잠시

55)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051-1052쪽.

56)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052-1053쪽.

만났게 되었으나 소철이 금방 자신의 임지로 되돌아가야 했기에, 이들은 만나자마자 다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睽離動作三年計，牽挽當爲十日留”에 이에 대한 소식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랬기에 첫 번째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인 “早晚青山映黃髮，相看萬事一時休”에서 하루빨리 소철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는 당시 이들이 있던 고장에 대해 묘사하면서 이곳이 노년을 보내기에 적합하며, 소철에게 여기에서 함께 은거하자고 제안했다. “欲買柯氏林”에 관하여 王文誥가 “가 씨의 구릉을 매입하려고 했다는 말이다. 이 계획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통하여 설당을 지을 조짐을 엿볼 수 있다(謂欲買柯丘也。然此計竟未成，雪堂之作，則兆於此矣)”⁵⁷⁾라고 했거니와, 비록 가 씨의 숲을 사서 은거하려던 계획을 끝내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실을 통해 소식이 은거할 장소까지 알아보며 계획을 세울 만큼 설당과 같은 소박한 시골집에서 소철과 함께 은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시들을 통해, 소식이 소철과 함께 침상을 맞대고 느긋하게 누워서 빗소리를 들으며 정담을 나누는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한창 젊었을 때 이미 시작되었고, 그 뒤로도 그 염원이 식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식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소철을 은거의 동반자로 여겨 왔던 것이다.

VI. 결론

소식이 <이공택을 전송하다(送李公擇)>⁵⁸⁾라는 시에서 스스로 “아아 저는 형제가 많지 않아서, 천하에 자유 하나뿐입니다(嗟予寡兄弟，四海一

57)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053쪽.

58)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816쪽.

子由)”라고 한 바와 같이 소식에게 있어서 소철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애뜻한 혈육이었고,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감정과 생각을 교류하는 절친한 시우였다. 그리고 신법파의 혹독한 핍박으로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소식에게 소철은 서로의 고초를 위무해 주는 정치적 동지이기도 했고, 반면에 그러한 官場의 속박에서 벗어나 함께 초연하게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은 은거의 동반자이기도 했다.

동생이 형의 애뜻한 혈육이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여염의 張三李四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소식의 경우 동생과의 우애가 남달리 깊었고 또 그것이 시로 승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면이 있다.

소식과 소철은 嘉祐 2년(1057)의 進士試에 함께 급제했다. 소식은 그때 歐陽修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들었으니⁵⁹⁾ 소식의 文才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소식보다 세 살이나 적은 소철이 19세의 어린 나이에 형과 나란히 급제했으니 그의 재주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알 만하다. 게다가 이들 형제는 嘉祐 6년(1061)의 制科에도 함께 급제했다. 총 3명을 선발한 당시의 제과에 소철이 형과 함께 당당하게 급제했으니 이 역시 소철의 문재를 짐작케 하는 일이다. 이들 형제는 나중에 과연 나란히 唐宋八大家로 손꼽히게 되었으니 천하가 그들의 문재를 공인한 셈이다. 소철이 소식의 절친한 시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다 이처럼 뛰어난 문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관직에 나아간 형제가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소철은 “돌아가신 아버지는 나의 스승이었고, 돌아가신 형 자첨은 나의 스승 겸 친구였다(先君, 予師也; 亡兄子瞻, 予師友也)”⁶⁰⁾라고 하여, 그가 아버지 소순은 물론 형 소식도 스승으로 여겼다고 했으니, 소

59) 당시 歐陽修가 梅堯臣에게 보낸 편지 〈與梅聖俞〉(四庫全書本 《文忠集》 卷 149)에 “이 늙은이가 길을 비켜서 그 사람에게 한발 양보해야 되겠습니다(老夫當避路, 放他出一頭地)”라는 말이 있다.

60) 〈歷代論一并引〉(蘇軾 著/曾棗莊·馬德富 校點, 《欒城集》, 1212쪽).

철이 형 소식의 정치적 관점을 따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관직 생활을 하다가 함께 정치적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정치적 동지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소철이 소식의 정치적 동지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둘 다 뛰어난 문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로써 서로 정치적 실의와 불만을 토로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세속적 가치를 부정하고 전원에 은거하는 것은 적지 않은 지식인이 추구해 온 생활양식이었다. 소식도 젊은 시절부터 은거를 추구했는데 특이한 것은 그가 바로 동생 소철과 함께 은거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두 사람의 가치관이 비슷하고 두 사람이 서로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가치관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그들의 부친 소순이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손꼽힐 만큼 뛰어난 문재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를 위해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를 거부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소식의 시를 통해 소식에게 있어서 소철이 어떤 존재였는지 살펴본 결과, 소식에게 있어서 소철은 애뜻한 혈육, 절친한 시우, 정치적 동지, 은거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식에게 있어서 소철이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형제의 우애가 남달리 깊었고, 소식이 소철을 친구로 생각하며 존중하고 소철이 소식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존경한 데다, 두 사람이 다 뛰어난 문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班固, 《漢書》(四庫全書本)
孫過庭, 《書譜》(四庫全書本)

- 王維 著/趙殿成 箋注, 《王右丞集箋注》(四庫全書本)
- 韋應物, 《韋蘇州集》(四庫全書本)
- 歐陽修, 《文忠集》(四庫全書本)
- 托克托, 《宋史》(四庫全書本)
- 葉夢得, 《避暑錄話》(四庫全書本)
- 류종목, 《팔방미인 소동파》, 서울: 신서원, 2005.
- 류종목 역주, 《정본완역 소동파시집1-5》,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2023.
- 정세진, 《烏臺詩案의 社會文化적 含意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白居易 著/顧學頴 校點, 《白居易集》, 北京: 中華書局, 1988.
- 暴拯群 主編, 《注譯本蘇東坡全集第十冊》,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8.
- 黃瑩, 《蘇軾蘇轍兄弟唱和詩研究》, 廣西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 賈濱 主編, 《注譯本蘇東坡全集第八冊》,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8.
-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0.
- 李艷杰, 《二蘇唱和次韻詩研究》, 鄭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 林語堂 著/張振玉 譯, 《蘇東坡傳》,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 朋九萬 撰, 《東坡烏臺詩案》, 北京: 中華書局, 1985.
- 蘇轍 著/曾棗莊·馬德富 校點, 《欒城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王水照 編, 《宋人所撰三蘇年譜彙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 王文誥, 《蘇文忠公詩編注集成總案》, 成都: 巴蜀書社, 1985.
-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7.
- 鄒同慶·王宗堂 著, 《蘇軾詞編年校註》, 北京: 中華書局, 2002.
- J.Huizinga.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Boston: The Beacon Press, 1964.
- 김보경, 〈韓國 ‘和陶詩’ 研究 序說〉, 《중국문학》 제66집, 2011.
- 우재호, 〈蘇軾의 書藝詩를 통해 본 書藝觀〉, 《中國語文學》 제71집, 2016.
- 胡鈺, 〈簡論蘇軾兄弟的“夜雨對床之約”〉, 《名作欣賞》 第33期, 2023.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shapes of Su Zhe(蘇轍) reflected in Su Shi(蘇軾)'s poems.

According to my research, there are more than 300 poems which show the shapes of Su Zhe in Su Shi's poems. These poems account for more than 10% of his about 2,800 poems. I attempted to find out Su Zhe's various shapes reflected in Su Shi's poems by analyzing these poems in depth.

As a result, I found out that Su Zhe played the role of a blood brother, a poetical companion, a political ally and a partner in rural life to Su Shi. I think that the reasons why those were possible are as follows. Firstly, the friendship between these brothers was very deep. Secondly, Su Zhe revered Sh Shi as a good teacher and followed him. Thirdly, Su Shi regarded Su Zhe as a good friend and respected him. Fourthly, both of them had excellent literary talent.

Key Words : 蘇軾(Su Shi), 蘇轍(Su Zhe), 혈육(blood brother), 詩友(poetical companion), 정치적 동지(political ally), 은거의 동반자(partner in rural life)